

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으로 살펴 본 코로나19위기발 세입여건 진단

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심혜정 과장

문제의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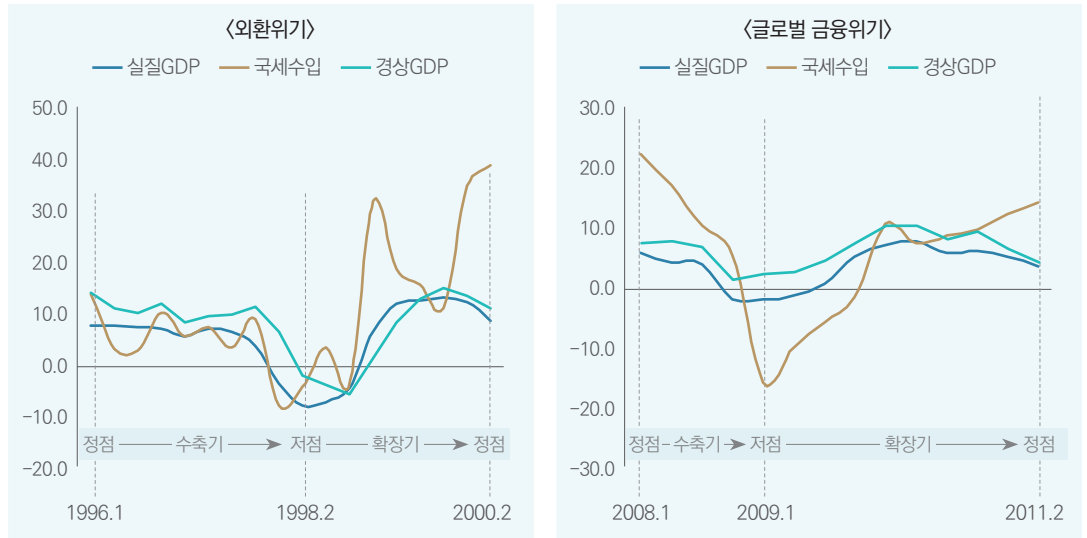
- **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충격이 위기국면으로 전이되면서 세입흐름의 하락을 동반**
 - 2020.1~4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7.9%(-8.7조원) 감소
- **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세입여건에 미칠 파장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**
 -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2/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나, 회복속도·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상존
- **다음에서는 경제 위기별로 세입흐름의 특징을 살펴보고 코로나19위기로 인한 세입여건의 향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**
 - 우리경제는 외환위기(1997~1998년)과 글로벌 금융위기(2008~2009년)의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 충격에 따른 세입의 현저한 하락을 경험

가. 경제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

- **외환위기(97~98년)와 글로벌 금융위기(08~09년)를 비교할 때, 성장률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의 둔화 정도와 지속기간 등에는 경제위기별로 차이**
 - 성장률과 국세수입의 방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행적으로 움직인다는 점(pro-cyclicality)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, 성장률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의 둔화 정도와 회복 수준 등에는 경제위기별로 차이 존재
 - 이하에서는 경제충격과 세입충격을 경기국면별로 지속기간(Duration)과 진폭(Amplitude), 기울기(지속기간에 대한 진폭의 비율)로 측정
 - 지속기간(Duration): 경제위기 발생 기간이 포함된 기준순환기의 정점에서 저점까지(수축기), 또는 저점에서 정점까지(확장기)의 개월 수
 - 실질GDP 및 국세수입의 진폭(Amplitude): 실질GDP증가율 또는 국세수입증가율의 정점에서 저점까지(수축기)의 변화분(%p) 또는 저점에서 정점까지(확장기)의 변화분(%p)
 - 경기국면별 기울기(Slope): 지속기간에 대한 진폭의 비율로, 실질GDP 또는 국세수입이 얼마나 가파르게 감소 또는 증가하였는지(steeptness)를 보여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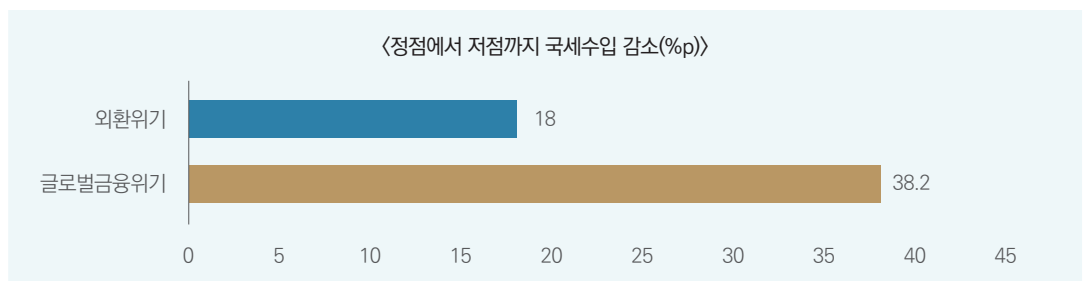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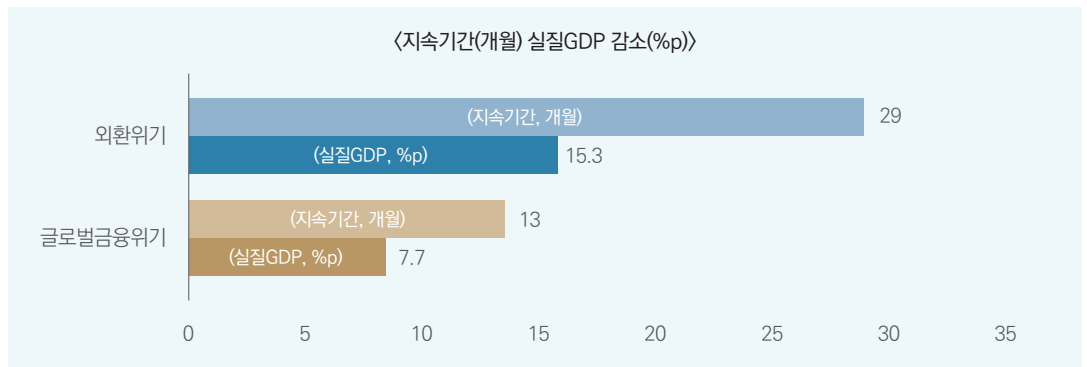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경기순환국면별 경제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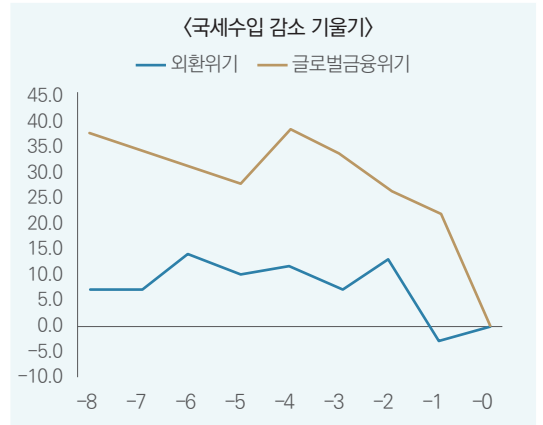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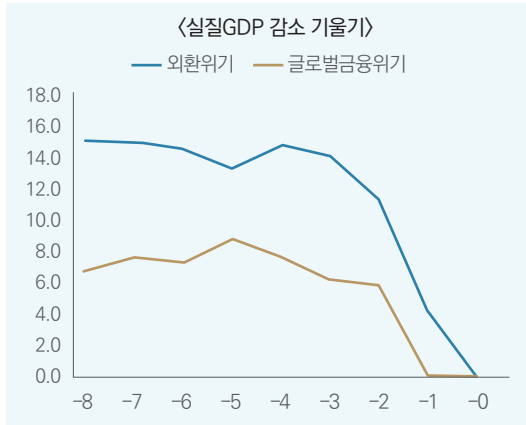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

- 주: 1. 통계청 발표 기준순환일을 기준으로 정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함
- 2. 국세수입 증가율은 기간별 징수시점의 차이를 스무딩(smoothing)하기 위해 분기별 누적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함
- 3. 국세수입 증가율은 지방소비세율 인상, EITC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를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며, 이하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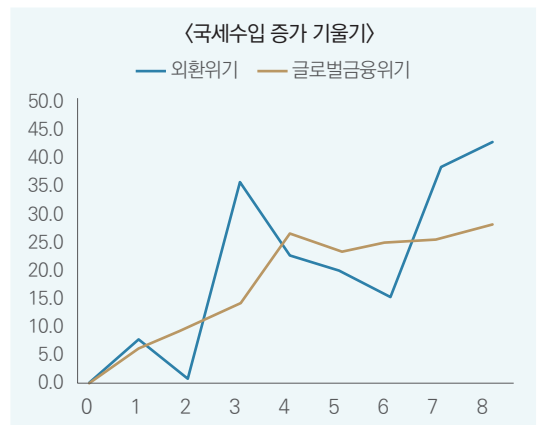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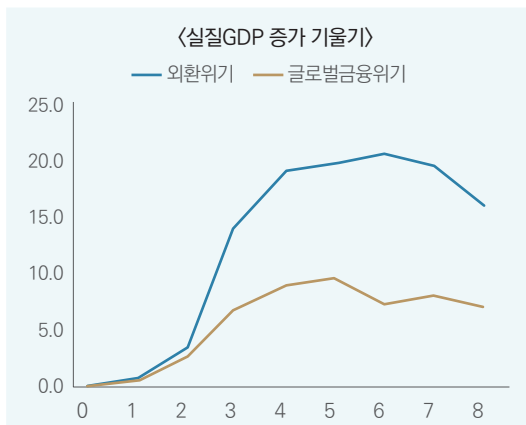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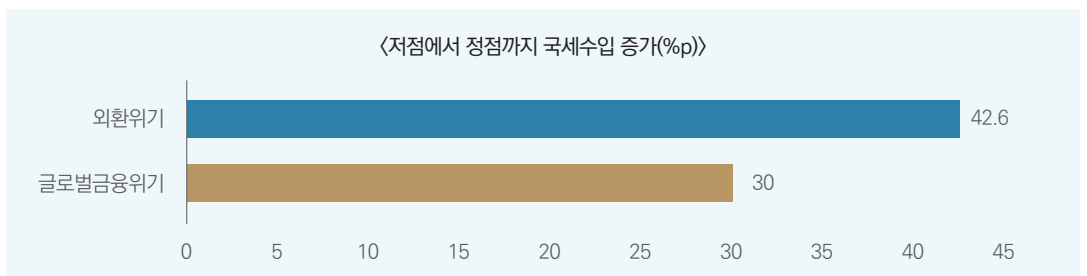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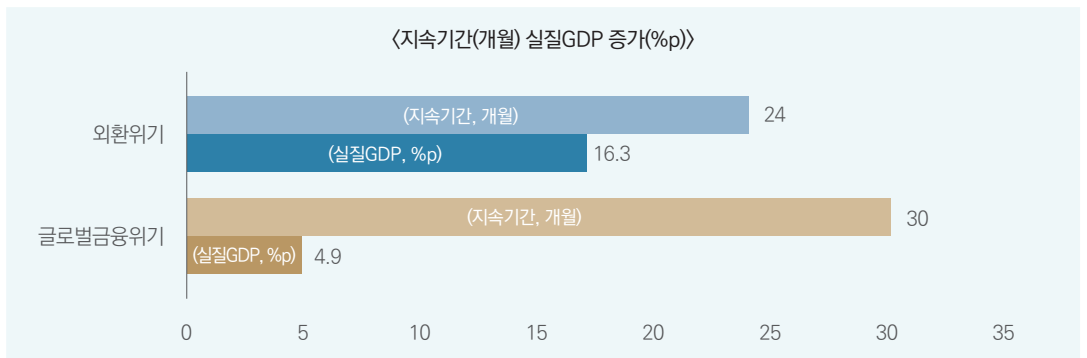
● (경기 수축기)외환위기시의 경제 충격이 훨씬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, 세입충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던 반면, 글로벌 금융위기시 세입충격은 성장률 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감소세





주: 1. 저점(t=0)의 수치(중앙값=0)을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값임

- (경기 확장기)외환위기 직후 확장기동안 국세수입 증가율은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가파른 반등세를 보인 반면,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세수입의 반등은 상대적으로 완만



주: 1. 저점(t=0)의 수치(중앙값=0)을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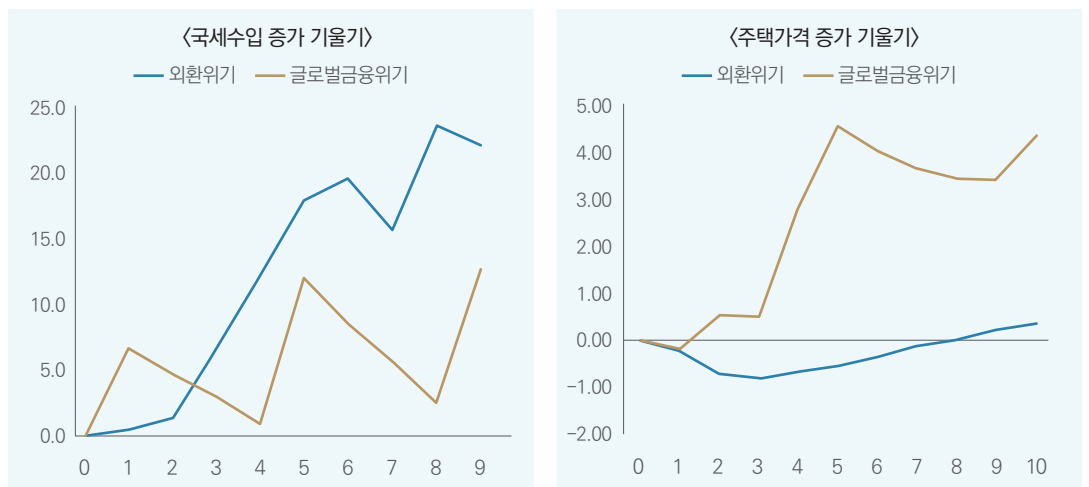
나. 위기별 차이원인

-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위기(highly synchronized recession)로, 외환위기는 전 세계적 동조화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위기로 특징지을 수 있음
 - IMF(2009)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위기는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고, 회복속도와 회복수준도 상대적으로 약함(weak)
- 이러한 위기별 특징으로 외환위기시 국세수입은 \checkmark 형, 글로벌 금융기에는 \vee 형의 흐름을 보임
- 이하에서는 위기별 국세수입 흐름이 다른 패턴을 보인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함

(1) 경기 수축기 비교

- (외환위기)외환위기시 경제충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세입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원인은 높은 물가, 이자율, 환율, 유가 등 가격지표들이 실물경제의 충격에 따른 세수 감소를 완충한 데 기인
 - 소비 위축, 대량실업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근로·종합소득세가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명목 금리, 물가 등 가격지표가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세, 유류 관련세수 등이 크게 증가
- (글로벌 금융위기)대외여건 악화로 법인세가 감소한 데다 직전 확장기의 자산시장의 붐이 꺼지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관련 세수의 큰 폭 감소로 성장을 둔화에 비해 세입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
 - 수축기동안 세수증감률 중 자산관련 세수의 기여도가 -1.7로 가장 큼

[그림 2] 위기 직전 확장기의 주요 지표



주: 1. 직전 순환기의 저점(t=0)의 수치(중앙값=0)을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값임
 2. 주택가격은 HP필터로 장기추세치를 구하고 장기추세로부터의 편차(deviation)를 주택가격지표로 사용함

(2) 경기 확장기 비교 ● (외환위기)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경제적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면서 세입여력을 한 단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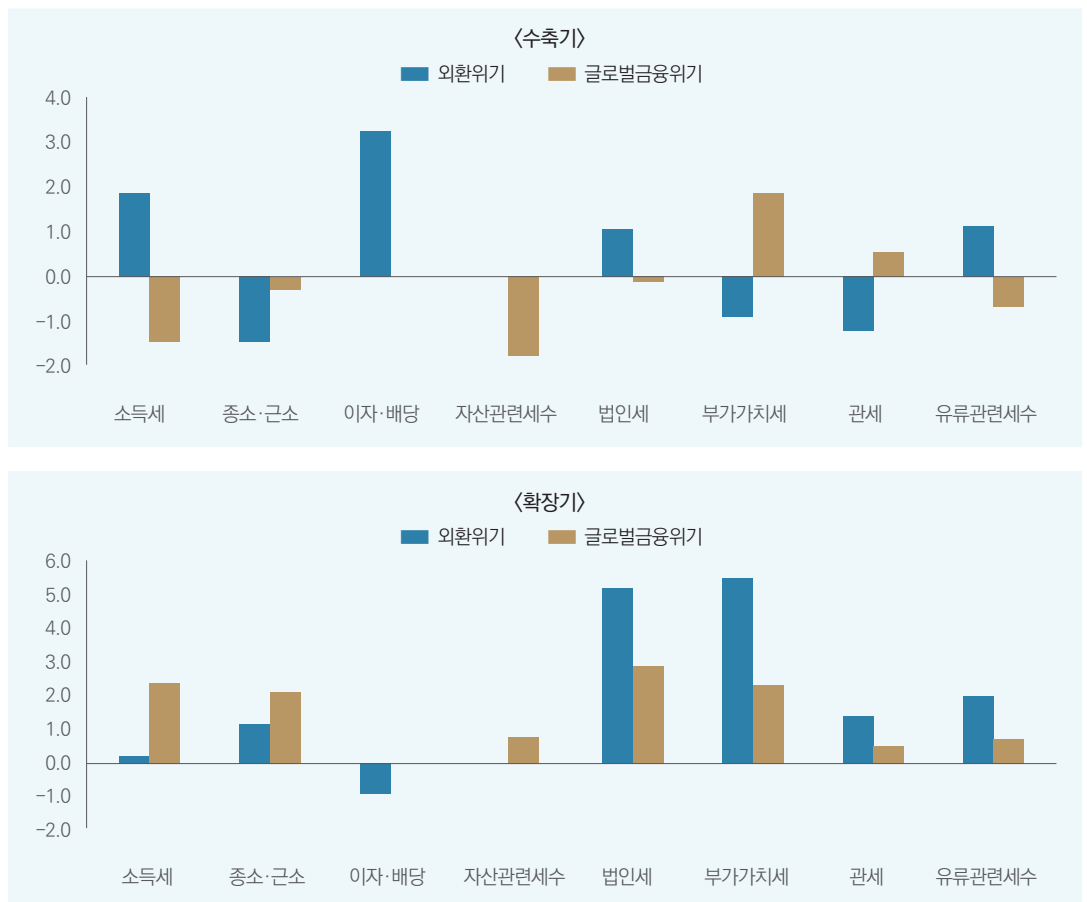
- 기업부문 구조개혁에 따른 법인수익구조 개선, 위기극복에 따른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높은 증가율로 반등

- 총요소생산성(TFP)증가율(한진하·신석하(2007)): ('90~'00)0.8% → ('00~'05)2.0%
- 법인 영업잉여(GDP대비 비중): ('90~'96)14.57% → ('99~'05)17.77%
- 조세부담률: ('94~'98) 16.3% → ('00~'04) 17.3%

● (글로벌 금융위기)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재정위기로 전이됨에 따라 수출, 민간소비 정체 등으로 경기 및 세수 회복속도와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

-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, 일시적 자산세수(windfall tax) 감소, 민간소비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증가율은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

[그림 3] 경기국면별 세수증가율의 세목별 기여도



주: 1. 분기 세목별 국세수입 자료의 긴 시계열 부재로, 세목별 기여도는 연간 증감률로 계산하였으며, 경기국면은 수축기: 외환위기(96~98년), 글로벌금융위기(07~09년), 확장기: 외환위기(98~00년), 글로벌금융위기(09~11년)를 기준으로 계산함
 2. 자산관련 세수는 양도소득세·증권거래세·종부세·상증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 3. 유류관련세수는 교통환경에너지세·개별소비세 유류분·부가가치세 중 유류분을 합한 금액임

[그림 4] 경제위기별 주요 지표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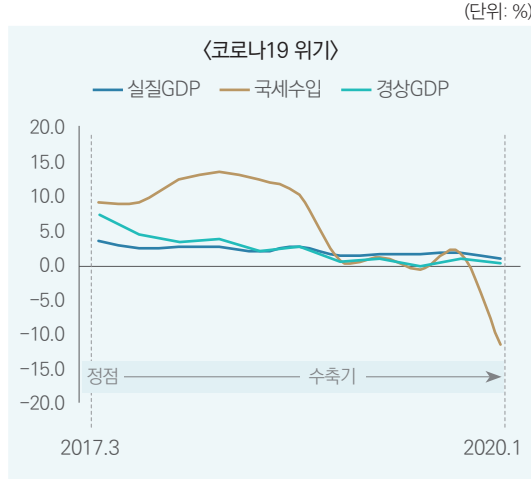


주: 1. 통계청 발표 기준순환일을 기준으로 경제위기 발생 기간이 포함된 기준순환일의 정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(분기별)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, 코로나19 위기는 직전 정점에서 최근까지의 지표를 나타냄
 2. 세로 점선 그래프는 각 위기별 저점(trough)을 나타냄
 3.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질 값이며,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정점(peak, t=0, 중앙값=0)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값임
 4. 코스피지수 및 주택가격지수는 HP필터로 장기추세치를 구하고 장기추세로부터의 편차(deviation)를 지표로 사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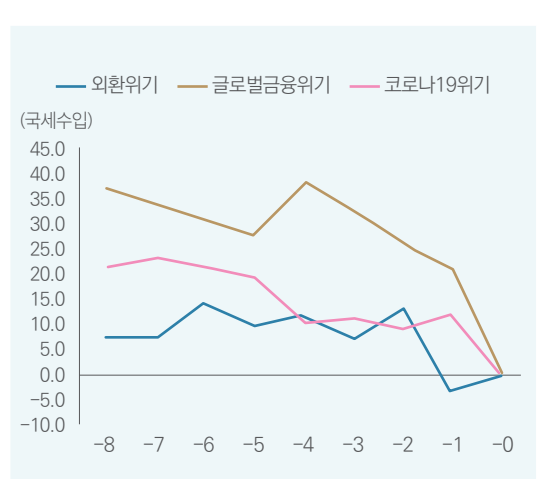
2020년
국세수입 전망

-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위기의 수축기간 동안 국세수입 증가율은 성장률 하락 속도에 비해 다소 가파르게 하락함

[그림 5] 경제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



[그림 6] 위기별 국세수입 감소 기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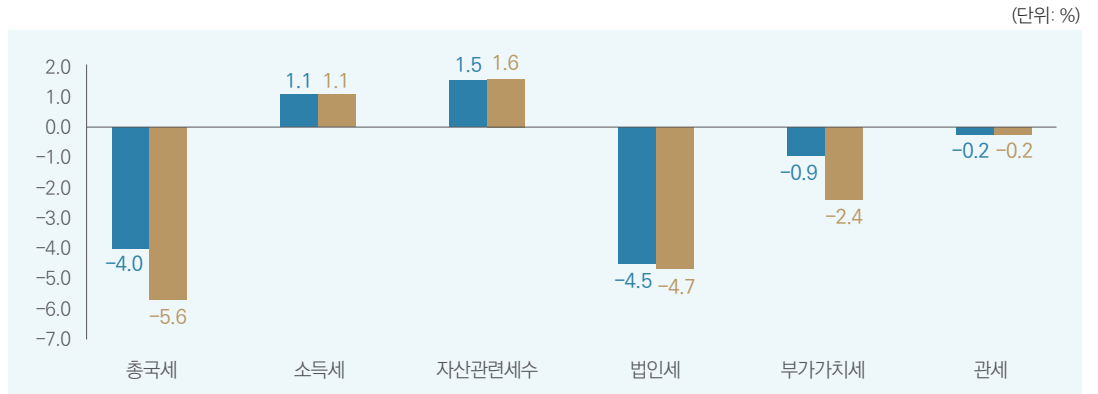


주: 1. 국세수입 증가율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를 제외하고 계산한 값임

- 2020년 국세수입은 2019년대비 16.7조원 감소(-5.7%)¹⁾한 276.7조원으로, 정부 추가경정예산안(279.7조원)에 비해서는 3.0조원 낮을 전망

- 전년동기 대비 총국세 증가율 -5.7% 가운데,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수익감소로 법인세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(기여도 -4.7)
- 코로나19 영향이 세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/4분기 이후부터 소비관련 세수의 감소폭 확대 예상
 - 민간소비 1/4분기(전기비, %): -6.4, 소비자심리지수:(20.1월)104.2 (5월)77.6
- 한편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따른 관련 세수의 호조세가 급격한 세입 감소를 완충
 - 양도소득세,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의 기여도는 +1.6

[그림 7] 2020년 국세수입(전망) 전년대비 증감률 및 세목별 기여도



주: 1. 주황색 막대그래프는 기본시나리오이며,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효과를 제외하고 계산한 값임
2. 자산관련 세수는 양도소득세·증권거래세·종부세·상증세를 합한 세수를 의미함

1) 지방소비세율 인상(6%p)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효과 제외시 -4.0%

[표 1] 2020년 국세수입(전망)

(단위: 조원, %)

	2019 실적(A)	2020					
		정부제출추경안(B)	NABO전망(C)	전년대비(C-A)		추경안대비(B-C)	
				증감액	증감률	차이	차이율
국세	293.5	279.7	276.7	△16.7	△5.7	△3.0	△1.1
소득세	83.6	88.5	87.0	3.4	4.1	△1.5	△1.7
법인세	72.2	58.5	58.3	△13.9	△19.3	△0.2	△0.4
상속증여세	8.3	8.4	8.8	0.5	5.7	0.4	4.6
부가가치세	70.8	64.6	63.7	△7.1	△10.1	△0.9	△1.4
개별소비세	9.7	9.5	9.2	△0.5	△5.2	△0.3	△2.8
증권거래세	4.5	4.9	5.2	0.7	15.9	0.2	5.0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14.6	15.5	15.3	0.7	5.1	△0.2	△1.0
관세	7.9	7.7	7.2	△0.7	△8.6	△0.5	△6.6
기타	21.9	22.2	22.1	0.2	0.7	△0.1	△0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**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, 회복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**

 - 특히 높은 대외의존도, 수출 중 글로벌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 구조, 국세수입 중 법인세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감안시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에 유의
 - 총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(2018, %): 한국(15.7) OECD(8.8)
- **향후 실물경제의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경우 2020년 세입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자산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**